



우03041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5길 37 (필운동, 1층) · Tel 02-6101-1024 · Fax 02-6101-1025 · 홈페이지 www.kopf.kr

수 신 :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 사회부, 문화부, 여론매체부

발 신 일 : 2023년 9월 14일

##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의혹 제기에 대한 자유언론실천재단 입장

1.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조성호)은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늘 김만배-신학림 간 인터뷰 의혹 건에 대해 마치 재단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개탄하며 재단의 입장을 밝힌다.

2. 자유언론실천재단 사무실은 임대인의 배려로 80년해직언론인협회, 새언론포럼,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주)미디어캐치, (주)디자인커서, (주)천년감동 등 10여 곳의 단체나 회사가 함께 사용하는 일종의 공유 사무실이다. 대부분 상근 직원을 둘 수 없어 사무실 주소만 이곳으로 두고 있고 특별히 회의나 모임이 있을 경우 사무실 공간을 이용한다. 출판사 또한 그 중 한 곳이다.

3.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출판사 간판이 없다는 걸 트집 잡으며 “출판사를 가장해 다른 목적을 이루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재단이 혼맥지도 책자를 제작해준 배후인 양 언급하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런 현실을 보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현주소를 다시금 실감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분명히 밝히건대 재단과 출판사는 재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연 별개다. 아울러 신학림 씨 또한 자유언론실천재단과는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고 후원회원도 아니다.

4. 아울러 일국의 집권여당이 흥신소 마냥 사무실 주소 찾아다니며 간판이 있네없네 시비 걸 시간 있으면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공부부터 하길 바란다.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비판과 논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를 언론사와 기자들을 군사작전 하듯 압수수색하고, ‘폐간’ ‘사형’같은 극언을 일삼으며 언론탄압의 구실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는 반헌법과 반민주적 작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자유언론실천재단은 49년 전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섰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선배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정신과 의미를 잇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과 시상, 출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늘 한국 언론운동의 원형질인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정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